

제 178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의 혐한파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강연자: 오구라 기조(小倉紀蔵) (교토대학교 교수)

교토대학교 오구라 기조 교수의 세미나가 11월 24일 국제대학원 2층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일본의 혐한파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오구라 기조교수는 '혐한'이라는 것은 '재특회(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헤이트 스피치 뿐만 아니라 '혐한파'라는 일본사회에 더 넓게 퍼져있는 세력이라고 설명하였다. 혐한파는 스스로 혐한파라고 부르지 않으나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혐한파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일본 내에 꽤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혐한서적이 일본에서 10만부 정도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구라 교수는 혐한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전후 일본의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전후 일본이 좌익 내지는 자유주의 국가였으며 진정한 보수가 없었고 자민당조차 사이비 리버럴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혐한정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어온 반복(反北)정서와는 다른 것으로 북한에 대해서 독재, 실패, 무법국가 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은 성공했지만 비겁한 승리자, 믿을 수 없으며 대등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대로 여겨진다.

1996년 한일월드컵이 개최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2002년까지 일본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알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을 몰랐더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국과 사이 좋게 지내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뒤이어 2003년부터는 한류로 한국이 매력적이고 한국을 배우자라는 의식이 생겼다. 하지만 이것에 반발을 느낀 사람들이 2005년부터 혐한만화 등으로 표출하며 2010년 한류도 주춤하게 되었다. 거꾸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까지가 혐한의 전성기라 볼 수 있겠으나 2015년에는 혐한에 반대되는 책들이 출판되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혐한의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이 심리적으로 좁아지고 '포용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 일본과 비교하여 총체적인 자신감상실, 고독감이 일본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동아시아를 사절하고 싶은, 역(逆)후쿠자와 지향이 불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가 일본보다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조용히 국내에 있으며 우리끼리만 살자고 하는 심리상태가 일본에 팽배해져 있다. 또한 혐한파의 심리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해 오며 참여했는데 이것에 해방하고 싶으며, 전통적으로 일본사람들의 한국사람과 조선사람을 멸시하고 싶고 관여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재특회와 혐한파는 재일조선인이 재일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별영주자격과 생활보호 수급이 높고, 연금수급자격이 없는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일반시민) 혐한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혐오감으로는 한국인의 종속성, 사대주의, 비겁하고 믿을 수 없고 더럽다, 준법정신이 없다, 법치주의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또한 역사를 날조(특히 식민지시대)하고 일본사람을 항상 적대시하면서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독일은 선하고, 일본은 악하다라는 허구성, 한류팬에 대한 혐오감이 있다. 혐한파의 특성으로 미디어를 통해 자기 주장을 잘 침투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몰락을 보면 혐한파가 전후 주류에 맞대응 하여 인터넷, 만화, 책, 잡지, 석간지 등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구라 교수는 크게 7가지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일본은 센터의 축이 없다. 전

후 자민당은 센터를 자칭했으나 좌와 우를 포함시킬 수 있는 담론을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 리버럴의 오만함이다. 그들은 일본사람이면서 스스로 초월적인 인물이 되어 일본을 심판하려고 했고, 현재 양심적 일본이라는 유통기한은 끝났다. 셋째, 한일, 북일, 일본인과 재일동포 사이에 상호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다. 넷째, 한국사람들이 위안부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문제에 대해 특수한 존재가 100% 잘못했다라는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여섯째, 일본인도 한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종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구라 교수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도덕지향적 전략이 아닌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일본사회의 협소함이 있고 지금의 젊은 일본사람들은 속죄의식이 별로 없으며 왜 70년전의 일을 본인들이 비난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는 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 갔으며 사상적, 철학적으로 어떻게 한일관계를 풀어야 하는지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한일 간이 쌓은 50년간의 상호신뢰의 역사를 바탕으로 서양과는 다르게 이 일을 생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1965년의 역사청산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해결하며 현재 한국과 맺은 1965년 협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를 남기며 강연을 마쳤다.

## 질의응답

질문1: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정치외교 입장이 바뀌었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혐한이 중국에 의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혐한서적에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출판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있나?

답변: 아베정권은 중국에 끝까지 대항하려고 하며 일반 일본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은 중국과 사귀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응할 심리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혐한파 보다는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한국의 중국경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출판사는 적어도 그런 내용을 전혀 내지 않고 있으나 그런 출판사들이 지금 몰락하는 반면 재미있는 혐한서적을 내는 곳의 책을 사고 있다.

질문2: 일본인은 왜 재일미군에 대해서는 반미감정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답변: 재특회 사람들의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점은 첫 번째 데모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데모였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큰 상대에 대응할 만한 큰 사람들이 아니다. 점점 이런 현상들이 적어질 것이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표면적인 혐한이 일단 재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용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고 내년부터는 한국을 제대로 알자 라는 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질문3: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답변: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10세기부터 문화가 있었겠지만 메이지 유신 이전 금, 은 등의 산출이

많았고 주변국과 문화를 교환하기 시작하여 축척해 왔던 것이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금, 은은 전혀 없다. 메이지, 다이쇼, 쇼와시대에 갑자기 국력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부의 축적이 있었다고 생각 되지만 근 20년을 보면 다 써버린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질문4: 일본에서 혐한파와 반한파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인가?

답변: 혐한파가 나쁘지는 않지만 재특회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혐한파가 일본에서 확대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 중에 좋은 이유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토대로 잘못된 인식을 쌓아온 부분도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혐한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질문5: 혐한파와 혐중파의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지?

답변: 보통 혐한파는 믿을 수 있는 상대인데 역시 가버렸구나 하는 실망을 2012년부터 안고 있으며, 혐중파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사귀어야 하지만 신뢰, 마음으로부터의 신뢰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문6: 혐한파가 생각하는 독도문제는?

답변: 영토문제나 역사인식문제를 너무 단순화 시켜서 보도하고 인식하는 경향이 한국에 있다. 독도문제는 따지고 보면 정당한 이유가 서로에게 없다. 너무 사료가 복잡하고 지명도 엇갈리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논의이다. 혐한파의 영토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인식이 대칭되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언론이 틀에 박힌 보도와 인식을 계속 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문7: 한국과 일본이 의존이 아니라 서로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제시하신 북일모델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기무라 사관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약소국, 피해의식, 사대주의) 한국에 제대로 대응하는 사관이 없을까?

답변: 북일모델은 한국처럼 다시 역사문제가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문헌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무라사관은 혐한사관과 비슷한데 어떤 식으로 또 다른 한국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한국측이 일본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어떤 삶을 그 당시 삶을 살았는지 일본인은 상상할 수 없다.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최근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한국이 주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야 한다.

질문8: 한국은 정치와 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문제와 역사문제가 분리가 가능하리라고 보신가?

답변: 일본에 한일경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삼성이 휴대폰을 팔면 일본의 하청업자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된다. 상호이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고 정치가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가 한일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다.